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베트남 -



거 제 시 의 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베트남

2. 출장목적

- 우리 시의 조선산업 인력 부족과 이의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비자 및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파악
- 우리 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을 돕고,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 현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 파악하여 정책입안에 참고

3. 출장기간 : 2023. 12. 26. ~ 12. 30. [5일 간]

4. 보고서 작성자 : 김선민 의원

5.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거제시의회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민	
	위원	이미숙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위원	정명희	

목 차

I 출장사항

- 1. 출장개요 7
- 2. 출장목적 7
- 3. 출장일정 8

II 출장국가 및 답사기관

- 1. 베트남 10
- 2. 답사기관 현황 12

III 활동사진 31

IV 정책 제언 38

V 출장소감 39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 장 사 항

1. 출장개요

- 출장국가 : 베트남
 - (하노이) 알파 유학원(동원학원), 하노이 한국대사관, 베트남 해외노무관리국, 현지 공장(VIET NHAT, NANG LUC),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현지 인력 공급 업체 - 맛바오
- 출장기간 : 2023. 12. 26. ~ 12. 30. [5일 간]
- 출 장 자
 - (의원) 윤부원, 김선민, 김동수, 이미숙, 정명희
 - (의회사무국) 윤병삼, 강명수, 김대웅

2. 출장목적

- 우리 시의 조선산업 인력 부족과 이의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비자 및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파악
- 우리 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을 돕고,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 현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 파악하여 정책입안에 참고하고자 함

3.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기 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분 야	활 동 사 항	
12. 26. (화)	부산	베트남 하노이	알파 유학원 (동원학원)	인력 송출	▪ 기관 현황 청취 ✓ 기관의 주요 수행 업무는 어떤 것인가? ✓ 비자 발급 및 교육 시 애로사항 청취 ✓ 한국 인력 송출 시 언어 교육 필수	인력송출 담당(트위터 팀장)
12. 27. (수)	하노이	하노이	하노이 한국대사관	인력 송출	▪ 기관 역할 청취 ✓ 기관의 주요 수행 업무는 어떤 것인가? ✓ E7 비자 심사 및 발급 기간 단축 방안 없을지 ✓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당부	권오정 영사, 김윤희 고용노동관,
			베트남 노동부 해외노동관리국	인력 송출	▪ 기관 역할 청취 ✓ 기관의 주요 수행 업무는 어떤 것인가? ✓ 베트남 인력 한국 송출 시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청취 ✓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및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베트남 정부 협력 요청	해외노동관 리국 응우옌 자 리엠 부국장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기 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분 야	활 동 사 항	
12. 28. (목)	하노이	하노이	현지공장 VIET NHAT	인력 훈련	■ 공장 현황 청취 ✓ 용접(도장) 공장 현지 답사 ✓ 한국(거제) 취업 희망 노동자 현황 ✓ 교육수준 파악 및 교육 시 애로사항 등 청취	공장장 NGUYEN VAN BAY
			현지공장 NANG LUC	인력 훈련	■ 공장 현황 청취 ✓ 용접(도장) 공장 현지 답사 ✓ 한국(거제) 취업 희망 노동자 현황 ✓ 교육수준 파악 및 교육 시 애로사항 등 청취	공장장 LE QUANG HUNG
12. 29. (금)	하노이	하노이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HHT)	인력 송출	■ 기관 역할 청취 ✓ 기관의 주요 수행 업무는 어떤 것인가? ✓ 인력 송출 시 필수 교 육 사항 당부(직업 교 육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생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LINH 외교부장
			맛바오 인력 공급 업체	인력 송출	■ 기관 역할 청취 ✓ 기관의 주요 수행 업무는 어떤 것인가? ✓ 인력 공급 시 애로사 항 청취	영업본부장 이종형
12. 30. (토)	베트남	부산		이동		

1. 대만

○ 국기 및 위치



베트남 국기



베트남 위치

○ 약 황

□ 일반사항

-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수도: 하노이(인구 840만 명)
- 인구: 9,818.7만 명(2022년 기준, 세계은행)
- 면적: 330,341km²(한반도의 1.5배)
- 민족: 비엣족(86.2%) 및 53개 소수민족
- 종교: 불교(14%), 가톨릭(7%) 등
- 기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 시차: 한국시간 -2시간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 주요인사
 - 당서기장 : 응우옌 푸 쯙(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 보 반 트엉(Vo Van Thuong)
 - 총리 : 팜 밍 쩡(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 의회: 임기 5년 단원제(의석 수 500석)
 - 현 제15대(2021-2026년) 국회의원 494명

□ 경제현황(2022년 기준, 세계은행)

- GDP: 4,088억 불
- 1인당 GDP: 4,163.5불
- GDP성장률: 8.02%
- 물가상승률: 3.16%
- 실업률: 1.92%
- 교역액: 7,306.5억 불(IMF)
 - 수출: 3,713.7억 불
 - 수입: 3,592.8억 불
- 환율: 1달러=23,271동(2022년 평균, IMF)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 1992.12.22. 외교관계 수립
- 공관: 1992.12.22. 상주대사관 설치
 - 최영삼 대사(2023.8. 부임)
 - 응우옌 부 쩡(Nguyen Vu Tung) 대사(2023.11.27. 이임)
- 교역: 약 877억 불(202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 수출: 609.6억 불
 - 수입: 267.2억 불

- 투자(신고기준, 2022년 누계)
 - 對 베트남: 475억 불(한국수출입은행)
 - ※ 베 기획투자부 통계(22년): 809.7억 불
 - 對 한국: 1억 불(산업통산자원부)
- ODA: 23.4억 불(1987-2021 누계, 총지출기준, OECD)
 - 무상원조: 7.15억 불(2021년 6,000만 불)
 - 유상원조: 15.8억 불(2021년 4,000만 불)

□ 주요인사 교류현황

- 방 한
 - 13.7. 응우옌 싱 흥 국회의장
 - 14.10. 응우옌 푸 쯙 당서기장
 - 14.12. 응우옌 쩌 쩡 총리
 - 18.12. 응우옌 티 킴 응언 국회의장
 - 19.11. 응우옌 쑤언 폭 총리
 - 21.12.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 22.12. 응우옌 쑤언 폭 국가주석
- 방 문
 - 13.1. 강창희 국회의장
 - 13.9.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문
 - 15.3. 정의화 국회의장
 - 17.4. 정세균 국회의장
 - 17.8. 양승태 대법원장
 - 17.11. 문재인 대통령(APEC 정상회의)
 - 18.3.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18.9. 이낙연 국무총리(쩌 다이 꺄 국가주석 조문)
 - 20.10. 박병석 국회의장
 - 23.1. 김진표 국회의장
 - 23.6.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 재외국민 현황

- 베트남 내 한국인: 175,652명(외교부, 2022.12.)
- 한국 내 베트남인: 235,007명(법무부, 2022.12.)

□ 인적교류 현황(2022년)

- 한국→베트남: 769,167명(베트남 관광부)
- 베트남→한국: 239,269명(법무부)

□ 북한과의 관계

- 1950.1.31. 수교(당시 월맹)
- 1950.10.25. 상호 상주대사관 설치
- 공관 현황
 - 주베트남북한대사 공석
 - 레 바 빙(Le Ba Vinh) 대사(18.7. 임명)

(출처: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외교부)

2. 답사기관 현황

① 알파 유학원(동원학원) 방문

- 일자: 2023. 12. 26.
- 장소: 알파 유학원 하노이 본원
- 논의 사항
 - ▶ E7 비자 발급 현황
 - ▶ 베트남→한국 유학생 및 노동자 송출 현황
 - ▶ 유학 및 송출 시 애로사항 청취



○ 간담회 주요 내용

▶ 알파유학원

우리 유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유학원은 2021년에 개원하여 비록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유학 시장 업계 1위에, 연 학생 1천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0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여 E7비자를 비롯한 각종 직

업 교육 필요 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고려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제휴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곳은 하노이 본사이고, 베트남에 총 3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이번에 우리 거제시의회가 베트남에 오게 된 것은 거제시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넘어오는 E7 비자 등 노동자들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알파 유학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알파유학원

용접원 등을 예로 들면 저희 원에 등록 시, 국내 협약된 100개의 대학에 연결하여 각종 실습 등의 교육을 마치고 그 뒤 한국어 교육을 거쳐 E7 비자 발급까지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대략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용접은 3개월, 한국어는 2개월 가량의 교육 기간을 거칩니다.

▶ 거제시의회

우리 거제에 현재 일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E7 비자를 발급해서 한국에 와 일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비용도 2천만원 정도나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 일인가요?

▶ 알파유학원

우리 유학원에서 등록하여 일을 진행하면 그 비용의 반도 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중간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원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중간중개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유학생과 노동자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알파유학원

사실 우리 베트남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서 뛰어난 교육을 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고, 급여 수준도 베트남과 비교하면 훨씬 높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팝과 드라마 등 문화적 요인의 한국에 대한 동경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3,4년 전만 해도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한국에는 젊은 사람이 적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더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 거제시의회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파유학원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합쳐서 약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매주 라이브 방송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400명 이상을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소통하거나 상담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중간 수수료 등을 빚으로 지고 한국생활을 시작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빨리 갚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역할이 있겠지만 현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출 인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하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안되니 조선산업처럼 중장비 등을 운용하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염려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본인에게도 언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어 교육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쨌든 장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사람들과 생활해야하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본인에게도 좋고,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② 하노이 한국 대사관 방문

- 일자: 2023. 12. 27.
- 장소: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논의 사항
 - ▶ E7 비자 발급 절차 및 기한 단축 방안
 - ▶ 베트남→한국 송출 인력 현황
 - ▶ 불법체류 방지 방안



○ 간담회 주요 내용

▶ 하노이 한국 대사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관 김윤희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근무하다가 베트남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송출 인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자 관련해서는 권오정 영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로 정부 기관 간의 고용허가제(E9)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부터 올해는 E7 비자 등으로 조선업 관련 용접공, 전기공, 배관공 등의 인력이, 농어촌 인력이 E8 비자로, 이렇게 3개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E7 비자의 경우 정부 간에 하기보다는 민간 기관 간에-조선협회 등-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사관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으로 취업을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자 발급이 너무 늦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 일이 오고가고 하다보니 중간 중개자들이 많아서 중개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2천만원 정도를 내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베트남 평균임금을 생각하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 하노이 한국 대사관

E7 비자 송출 인력은 베트남 말고도 6개 국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E7 비자 관련하여 베트남 쪽 노동부 관계자를 여러번 만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부와 조선협회 등도 포함시켜 온라인 회의 같은 것도 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경향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인력 송출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이게 민간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도입에 대해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순서로 반드시 베트남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걸 승인 받은 다음에 이후 인력 모집 절차, 훈련 등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국가 같은 경우 정부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경우 승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산주의 국가다보니 매우 깐깐하게 심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 몇 년 간은 부정부패 문제로 관료들

이 많이 잡혀가다보니 더 간간하게 보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베트남 정부 승인 이후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특별히 비자 발급이 오래 걸린다하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인력 송출 관련 수수료, 흔히들 말하는 브로커를 거쳐가서 소요되는 중간수수료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을 시 베트남 정부에서 수사 협조 등을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송출 인력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인력들의 불법체류 문제입니다. 불법체류는 여러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수수료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수수료를 대부분 빚을 지는 형태로 안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빨리 갚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노이 한국 대사관

중간중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중개 수수료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이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민간 개입 자체를 막아두어 그러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아무래도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돈을 벌고자하는 욕망, 한국의 사업주 마인드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불법체류율이 굉장히 낮는데,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거제시의회

불법체류자를 쓰는 사업주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현황은 어떤가요?

▶ 하노이 한국 대사관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올해 쿼터가 12만 명이었는데 플러스 알파 더 될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10만 명을 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만, 올해 1만명을 더 추가해서 12만명이면 공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6만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 쿼터가 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체류 했을 때 패널티를 강하게 주면서 또 기업이 합법적으로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송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율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높으면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 심사를 할 때에도 당연히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것을 간간하게 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율을 낮추려 애씁니다.

▶ 거제시의회

아무래도 현지에서 베트남 정부와 직접 소통하실 기회가 많고하니 아까 말씀드린 불법체류 관련 문제,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언어, 생활, 문화 등)에 대해서 꼭 좀 말씀 전달 부탁드립니다.

③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 미팅

- 일자: 2023. 12. 27.
- 장소: 하노이 노동부 산하 해외노동관리국
- 논의 사항
 - ▶ 비자 발급 기한 단축
 - ▶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 ▶ 원활한 노동자 채용을 위한 요청사항



○ 간담회 주요 내용

- ▶ 하노이 해외노동관리국 부국장

환영합니다. 해외노동관리국 응우옌 자 리엠 부국장입니다. 거제에는 대형 조선소가 2개 있고,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베트남 노동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비자 발급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 브로커 등으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 하노이 해외노동관리국 부국장

비자 발급이 오래걸린다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국 기업에 2만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지원을 했는데 1만5천명 정도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만명 정도만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 5천명은 1년을 기다렸다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요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다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E7 비자 같은 경우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중 30%만 외국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러한 제한 때문에 베트남에서 인력 송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늘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승인을 위한 서류 등을 한국기업에 확인받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심사와 관련되는 기한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는 정부에서 하는 E9 같은 경우는 650달러의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E7은 민간부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우리 베트남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 거제시의회

불법체류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불법체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 하노이 해외노동관리국 부국장

인력 송출 전 면접 등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인지시키기도 하고, 보증인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사실 우리 베트남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자가 한국으로 가기 전 교육 등을 통해 불법체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도 베트남 노동자들의 적응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베트남 노동자 모임 등을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④ 하노이 현지 공장 방문

- 일자: 2023. 12. 28.
- 장소: 현지공장(VIET NHAT, NANG LUC)
- 탐방 사항
 - ▶ 비자 발급을 위한 교육 현장 확인
 - ▶ 직업 훈련 실습 및 용접, 도장 작업 탐방



⑤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HHT) 방문

- 일자: 2023. 12. 29.
- 장소: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 논의 사항
 - ▶ E7 비자 발급 등을 위한 실습 교육장 탐방
 - ▶ 인력 송출 애로사항 청취



○ 간담회 주요 내용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환영합니다.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외교부장 린입니다. 우리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은 2009년 설립된 공립대학입니다. 90여 개의 산업분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5천명 이상의 학생이 있습니다. 3년제 단기 코스이고, 기업과 학교들 합쳐서 약 400 군데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 인력 업체인 다모아 에이

전시를 비롯한 여러 업체 대표님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 교환했으면 합니다.

▶ 거제시의회

우리가 이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교육 실습장을 다녀왔는데요. 실습자를 보니까 학생이 아니라 30대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학생 외에도 한국으로 오고자하는 베트남 사람이 많나요?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E7 비자의 경우는 조선협회에서 주관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보니 나이와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가 가장 많고, 어린 학생들은 일본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으로 더 많이 갑니다. 요즘 추세를 말씀드리면 비자 발급 면접을 준비하는 베트남 학생 10명 중 7명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인력 송출 관련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E7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거제시에서 베트남인 채용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7 비자로 한국에 가려면 조선협회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1~2개월에 한번 정도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에 대한 일정 조율이 좀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 거제시의회

교육기관이니 만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 실습 현장도 둘러보고, 기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 교육입니다. 아까 교육장에서 본 용접 기술도 훌륭하지만 그런 기술은 한국 현장에서 어차피 다시 교육 받아야합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돼야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조선업은 중장비 등의 활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산업 부분보다 높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말이 안 통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몇 년 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야하는만큼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만큼 치안 부분 등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생활태도나 인성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⑥ 맛바오 현지 인력 업체 방문

- 일자: 2023. 12. 29.
- 장소: 하노이 맛바오
- 논의 사항
 - ▶ 인력 송출 현황
 - ▶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현지 업체의 노력



○ 간담회 주요 내용

▶ 맛바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지 인력 업체인 맛바오의 영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형입니다. 현재 하노이 한인회 행사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 하노이지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GAET 노명준 부사장님과 함께 현지 인력 송출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 거제시의회

맛바로나 오늘 함께 오신 GAET 사가 베트남 내 인력의 한국 송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맛바오

저희는 조선소, 계절근로자, 간병인, 요리사 등 다양한 종류의 인력을 한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맨파워 회사에서 의뢰받아 한국의 미포, 삼호 조선소 등에 전기공, 도장공, 용접공 200명을 송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꼽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중개수수료가 무척이나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 맛바오

한국으로의 송출비용은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600만 동과 추가로 서류비용, 전달비용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송출 시 수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분할 납부합니다. 2천만원이나 드는 경우는 중간에 중간브로커가 너무 많이 끼어든 탓이라고 봅니다.

▶ 거제시의회

E7 비자 발급을 위한 조선협회 실기 시험 등 일정 조율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력 송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 맛바오

조선업 관련 E7 비자 채용은 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기공, 도장공은 서류심사로 끝이 나지만 용접공은 한국조선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능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마 이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조선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일정조율에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인력 송출을 위해 E7 비자보다 발급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D-4-6 산업연수 비자 제도를 활용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6개월 연수 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의 비자이며, 기술연수원이 갖추어져 있고 연수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금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

불법체류를 흔히들 ‘이탈’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산재 등 사고 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회문제가 예상됩니다. 이탈 방지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맛바오

가족을 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서약서를 공증받고, 만약 채용된 한국 기업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가족이 2만 달러는 부담하는 식의 이탈방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한국으로 송출 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탈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거제시의 조선소 쪽으로 인력 사업상 진출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삼성과 한화의 인력 송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 출신이거나 다른 연결고리가 없으면 인력송출업체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향후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에서 베트남인에 대한 고정적 채용 요인이 있고, 맛바오에 의뢰를 해 주신다면 거제시에 맛바오 지사를 설립하여 외국인 노동자 송출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알파유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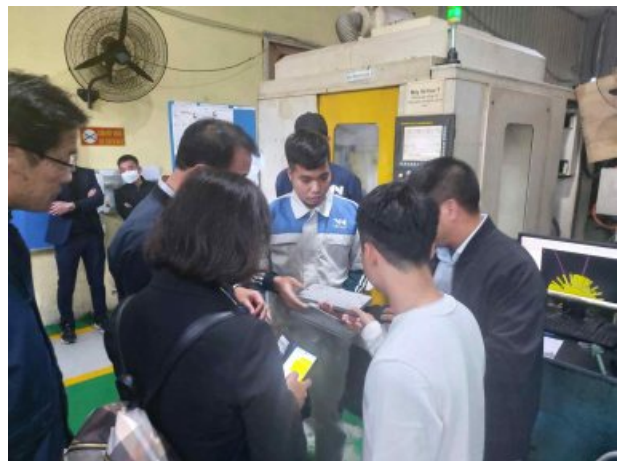
□ 하노이 한국대사관



□ 하노이 해외노동관리국



□ 베트남 현지 공장(VIET NHAT, NANG LUC)



□ 베트남 현지 공장(VIET NHAT, NANG LUC)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HHT)



□ 맛바오 현지 인력 업체



- **한국으로 인력 송출 전 베트남 인력 송출 업체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 교육 실시**
 -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한국어 교육 필요
 - 한국 사회에 이질감 또는 위화감 없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 생활 법률, 기초질서와 관련된 교육 필요

- **한국으로 인력 송출 후 거제시 주관 증소형 조선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주민들에게 거부감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한국의 문화, 생활법률, 기초질서와 관련된 교육 실시

- **불법체류 예방책 마련**
 - GAET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처럼 현지 인력 송출 업체에 강력한 이탈방지책 마련 촉구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적용
 -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외국인 고용 확대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이미숙 의원]

23년 12월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만난 후 베트남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용차량을 타고 현지 E7비자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자마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뒤엉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주행과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베트남의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생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좋지 않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으며, 하노이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곳 5위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E7비자 교육기관 중 하나인 알파 국제 유학을 방문하여 인력송출 담당자를 만나 베트남의 젊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한국으로 보내는지,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파 국제 유학의 경우 한국어 교육, 한국 유학 전문 회사로써 한국내 총 100여개 대학과의 협력, 알파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대상 100% 토픽자격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베트남에서 일부 교육을 받은 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서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경험도 쌓고 급여도 베트남보다 높은 등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베트남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K-Pop 인기로 인해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도 베트남인들이 유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용접 교육을 3개월을 받고 언어 교육을

2개월을 받는 등 유학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신청을 하면 대사관에서 승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튿날에는 현지 노동청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노동청 관계자의 말로는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베트남의 법관련 규정과 출입국관리국과의 승인절차 등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현재 11,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에 많은 문제점들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슬리퍼를 신고 활보하며 담배를 피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하며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교육적인 부분이나 규율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같이 불법으로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하고, 추방하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자 관련 사건사고를 뉴스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기도 주했다던지, 어느 지역에서 임금을 몇 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가 폭행을 했더라는 뉴스 등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4대보험과 같이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규율을 제정 및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청 관계자와 미팅을 했을 때 베트남의 많은 노동자들이 브로커나 중개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며, 노동자들은 수천만원의 빚을 내어 한국으로 들어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며, 돈을 다 갚기 위해서라도 불법으로 체류까지 하면서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 영사관과 협업하여 불법체류 문제도 속히 해결해야 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업체들은 불체자를 선호하는 곳이 피나 있다면서 사업주들 역시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의 중심이며 거제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오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국고예치금을 베트남 돈으로 1억원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기간동안 맞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귀국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기술적 부분을 포함하여 언어, 인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거제시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기적인 언어와 인성 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와 베트남 근로자들도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도 베트남 문화 등을 알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일을 배우며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거제시,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현지 용접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장님과 미팅을 하고 공장을 둘러보며 베트남의 기술력도 몰라보게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접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현지 용접공장에서 기술공들을 보면서 여기서 배우고 일한 뒤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한다면 기술력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근로자를 키울 필요 없이 곧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지 공장 측에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지에

용접공장에서 근로자들을 가르치는 분들 대부분이 베트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한국에서 원하는 근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인 선생님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인 선생님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문화적, 언어적인 부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인력송출 전문회사인 맛바오 BPO를 방문하여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식으로 인력을 타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보내는지 등에 대해 설명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바오의 경우 이미 거제에 위치한 업체에서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플랜트 쪽에도 큰 관심이 있다면서 거제 양대 조선소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젊은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노동임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제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평등하게 같은 사람으로써,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스스로가 더 공부하고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있는 기간만 채우기 위해서, 베트남보다는 돈을 많이 주니까라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이 본인 스스로와 기업, 그리고 거제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희 의원]

거제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동안 조례발의 및 심사, 예산,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등 20일간의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이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일 간 이어진 의사일정 속에서 거제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후 3일 뒤인 26일 베트남에서 직접 현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 일정에 참여했다.



▶ 조선업 특정활동 비자 관련 베트남 현지 확인

우리 거제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2년 5,900여 명에서 2023년 12월 기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한 과제를 삼고 베트남 현지를 떠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취업비자와 E-7, E-9 비자 등의 발급 절차와 외국인 노동자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착하자 바로 현지 노동청에서 미팅을 가졌다. 미팅을 통해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베트남 국외 출장 보고를 하고자 한다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간담회 모습

베트남 노동청에 가서 취업비자로 들어올 때와 E-7, E-9 비자의 발급 및 교육 등이 현지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현장에서 알아보고 궁금한 점은 질의를 했다.

최근 우리 거제시에 조선산업 인력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의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취업비자로 베트남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데 현지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는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E-7, E-9 비자를 가지고 중간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베트남 알바 유학원 간담회 (비자 발급 및 교육시 애로사항 청취)

지원수가 거의 2만 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 1만 명 정도의 인원을 받다 보니 중간에 브로커들이 돈을 많이 받아 불법적으로 보내는 등 현지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몇천만원씩 빚을 지고 들어오는 등 현지 베트남 노동자들도 나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약 5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관계자

의 설명이 이어졌다.



▶ 베트남 노동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모습

한국에서의 실제 허용 가능한 수는 1만 명 정도로, 중간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불법적인 돈 거래가 이뤄지는 등 베트남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다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취업비자 발급 절차는 까다롭고, 많은 사람이 1년 2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전해 주었다.



▶ 하노이 한국대사관 간담회 모습

E-7 비자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들어보니 경험과 경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자격증 위주 즉, 자격증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막상 염려했던 이야기를 현지에서 듣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E-9 비자의 경우, 정부에서는 650달러만 있으면 정부 기관을 통해서 승인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E-7, E-9의 경우 3000달러에서 4000달러를 받는 등 정부에서 관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문제로 베트남에서도 큰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국에 들어갈 기회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빚을 지고 들어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실습 교육장 현장

우리 거제시도 지난 9월 19일 각 조선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측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거제시의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들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의 언어 및 문화교육, 소통의 창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센터 유치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있다고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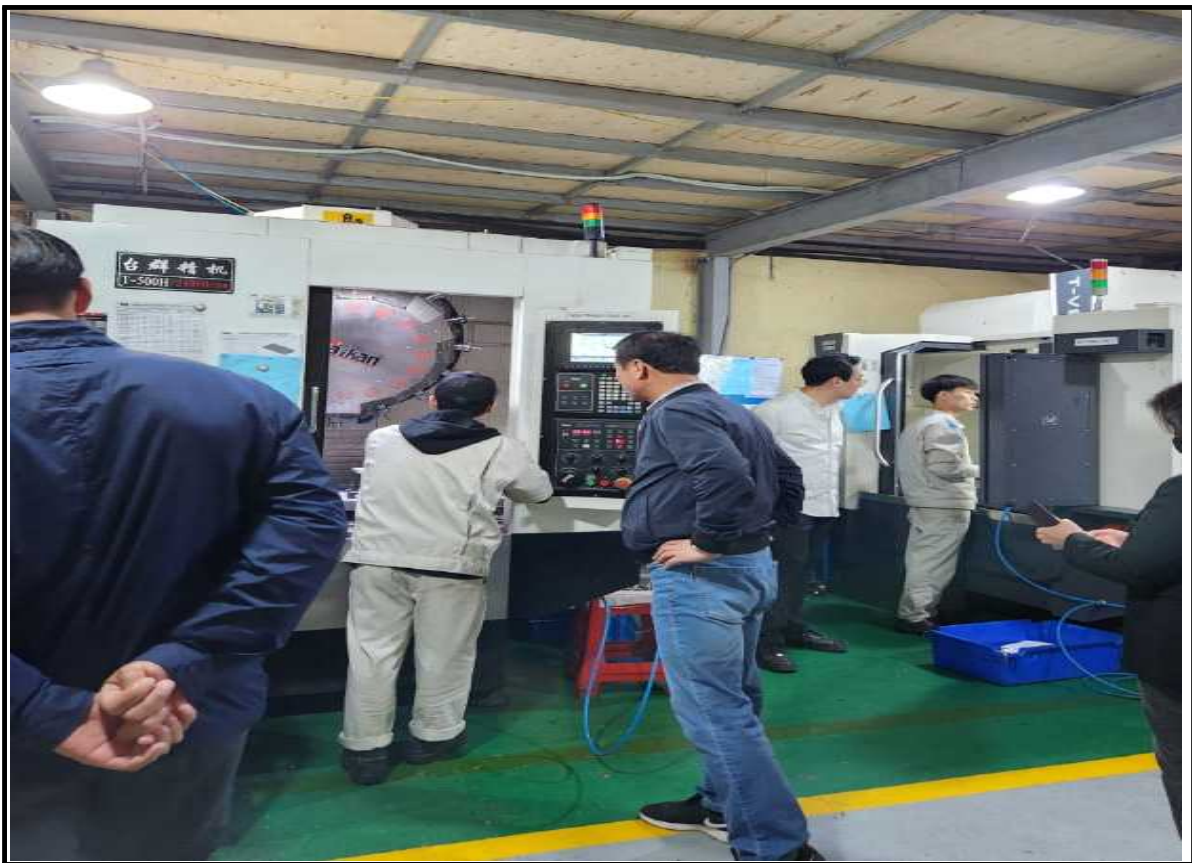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실습생 용접 작업 평가 현장



▶ 작업장 내 안전 규정 사항

노동청과 기술대학교 유학원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윤부원 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다. 첫 번째는 일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는 말로 “위험해요. 피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등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의 차이를 이해하면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베트남과 한국 간의 문화 차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노라 답도 들었다.



▶ 현지공장 기계작동 시연 모습

베트남 현지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일부 불편한 점들이 있었

다. 특히 호텔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으나, 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밤새 몸살로 오한이 들어 무척 힘들었다.

빡빡한 일정에 베트남의 좋지 않은 공기와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나기 시작하고, 컨디션 난조로 몸은 한기가 들어 덜덜 떨리기까지 결국 빈속에 약을 먹고 바로 잠을 청했다. 호텔에서는 개별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환경적인 면에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거제시의 현황을 감안하면, 거제시 전체인구가 245,811명으로 (한국인 234,038명, 외국인 11,773명)이며, 거주외국인 인구 중 베트남 국적이 2,39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베트남 노동자가 겪을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베트남 아침 출근길 모습

며칠 동안 베트남을 다니며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시였다. 가는 곳곳마다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질서 속에 마치 질서가 있는 듯 막힘없이 잘 지나다녔다.



▶ 베베 오토바이 택시

오토바이가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오토바이 택시가 대중화되어 be be라는 회사의 택시들이 많이 보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데도 베트남 시민들은 익숙해서인지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것도 정말 신기해 보였다. 만약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니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은 있으나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서로 알아서 이해하고 간다고 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신기하게도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잘 안 난다는 사실이 더 이상했다.



▶ 베트남의 시내 거리 모습



▶ 베트남 집회 시위 현장

종합적으로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것 즉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거제시에서 조선산업 인력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벽 유리창을 통해 내다본 풍경은 부엌고 흐릿한 도시의 모습과 질서라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이곳저곳 달려가는 오토바이들을 보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였다.



▶ 오토바이로 혼잡한 베트남 인도의 모습

우리 거제시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강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탄소중립이나 환경 오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베트남의 미래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도로의 쓰레기와 매연, 눈 따가움 등은 현실적

으로만 보아도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기 중 미세먼지와 공기 질이 상당히 나빴으며, 베트남의 맑은 날은 보기 힘들었다.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방문 환영 모습

이번 4박 5일 베트남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현지에서 직접 베트남 노동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교육을 받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도 거제시와 베트남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느꼈다.

거제시의 이주외국인 노동자 중 특히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들은 거제

시의 조선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외 출장 기간 내내 거제시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타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서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언제든지 실력과 기술을 갖추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제시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등 기반이 잘 조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